

# 安 “차기 총리는 일자리 해결·국민통합 리더십 필요

## “무너진 공정·법치주의·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건 기본”

### 지역 균형 발전, 지속가능성 문제도 총리 리더십 거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새 정부 초대 총리의 자질로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일자리 해결, 국민통합 등의 그런 리더십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차기 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이나 총리 인선에 담겨야 할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위기지만 국가 내부적으로도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금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없이 5년 단위로 계속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정권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걸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큰 거대 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이 일단은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런 기본 아니겠냐”며 “윤석열 당선자를 뽑은 국민들의 열망 중에 첫 번째가 아마 그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며 “어떻게 하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 사실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야지만 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세 번째로 들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아주 깊숙히, 그 영향이 저출생 고령화까지 미치고 있다”며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고 수도권만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떠나면서 지역은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 온 청년들이 높은 생활비에다가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집값도 높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를 못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생이 악화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거론한 안 위원장은 “앞으로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연금을 지불할 돈이 바닥이 나게 된다.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소 중립도 우리가 이뤄야 된다. 국제적인 약속”이라며 “그것 이외에도 교육 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무가 사실은 이번 정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번째로는 국민 통합”이라며 “지금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냥 위원회 차원의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랩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총리직을 고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위원장은 “저는 제가 맡은 업무와 이렇게 서로 충돌되

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백지 신탁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한테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백지 신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백지 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 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총리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당선자분과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며 “그분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우선은 아주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할 일은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기 총리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별도로 추천했는지를 기자들이 묻자 안 위원장은 “제가 당선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해 저는 인수위원장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래서 따로 제가 총리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장제원 “총리 인선, 지금부터 시작...다음달 초 발표”



### “안철수 거취가 관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0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거취가 사실은 관건이었지 않나”라며 “오늘 본인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으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거취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무총리직을 고사했다는 뜻이다.

장 실장은 총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건 오보”라며 “3배수니 4배수니 하는 건 다 오보다. 지

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거론되는 후보군에 대해서도 “사람을 갖고 얘기하지 말라”며 “이제부터 잘 시작해보겠다”고 했다.

총리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월 초에 발표를 해야 하니까 늦지 않게 잘 만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안 위원장이 총리직 고사 뜻을 밝히면서 경제 전문가나 국민통합에 적합한 사람이 초대 총리로 지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 등이다.

서선욱기자

## 전여옥 “김 여사 옷값 ‘대통령기록물’ 15년 뒤 공개...국민 개돼지로 알아”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논란에 대해 “왜 김 여사 옷값이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 건가”라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 쉽고, 저 같으면 칼 같이 공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29일 김 여사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입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무 구입 목적 특별비 등은 국가 예산을 편성에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

다”며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입 꼭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제가 낸 세금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